

# 고려시대 청주 지방 세력의 중앙 진출과 그 세력변화\*

## - 청주 ‘土姓’을 중심으로 -

신호철\*\*

- 
1. 머리말
  2. 고려 건국 기 청주 호족과 ‘土姓’의 형성
    - 1) 고려의 건국과 청주 호족
    - 2) 청주 ‘土姓’의 형성과 중앙 진출
  3. 청주출신 문벌귀족의 세력변화
  4. 맺음말
- 

## I. 머리말

청주는 일찍부터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백제의 上黨縣, 고구려의 娘子谷城, 신라 신문왕 5년(685)에 西原小京, 경덕왕 때에 西原京으로 정치·군사·교통의 요지이자 지방문화의 중심지였다. 淸州는 고려 건국 초에 붙여진 이름이다.<sup>1)</sup>

---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청주에는 일찍부터 강력한 지방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신라 말 고려 초 청주 지방 세력의 위상은 매우 특별하였다. 청주 일대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견훤과 궁예는 이곳의 호족세력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궁예를 이은 왕건 또한 청주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때문에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청주 호족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주 토착 세력들의 향배가 후삼국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후삼국기 청주의 호족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필자 또한 이미 청주호족에 대해 몇 차례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sup>3)</sup> 그러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문벌귀족 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청주의 지방 세력 중 누가 언제, 어떻게 중앙에 진출하였고, 또 어떻게 그 세력이 변화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없다.

이 글은 청주 지방 세력들이 중앙에 진출하여 문벌 귀족화되는 과정과 그들 세력이 누구였는지 등, 그 구체적인 정치적 추이를 청주 ‘土姓’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우선 고려 건국과정에서 청주 호족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고려 건국이후 청주의 토착세력들이 ‘土姓’을 分定받아 재지세력으로 활동하는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청주 토성집단들 중에 어느 姓團이 언제 중앙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아울러 중앙에 진출한 청주출신

- 
- 1) 청주의 연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34, 지리지 청주목 및 『고려사』 56, 지리지 청주목, 『신증동국여지승람』 15, 淸州 建置沿革을 참조하라.
  - 2) 청주호족을 독립해서 다룬 연구는, 朴敬子, 1986, 「淸州豪族의 吏族化」 『원우논총』 4, 숙명여대 대학원; 金甲童, 1985, 「고려건국기 청주세력과 왕건」 『한국사연구』 48; 金周成, 1988, 「고려초 청주지방의 호족」 『한국사연구』 61·62합집; 安永根, 1992, 「羅末麗初 청주세력의 動向」 『박영석화갑기념논총』 등이 있다.
  - 3) 신호철, 1993,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 『호서문화연구』 11, 1999, 「궁예와 왕건과 청주호족 - 고려 건국기 청주호족의 정치적 성격」 『중원문화논총』 2·3합집(2002,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충북대출판부 개신, 재수록).

문벌귀족과 재지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끝으로 중앙에 진출한 청주출신 중앙 귀족들이 고려 말 조선 초기를 거치면서 그 세력의 盛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에서 청주 지방 세력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 고려 건국 기 청주 호족과 ‘土姓’의 형성

### 1) 고려의 건국과 청주호족

후삼국시기 청주의 호족세력은 궁예의 가장 든든한 세력기반이었다. 『三國史記』 궁예전에 의하면, 궁예가 처음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淸州人戶 一千’을 鐵圓城에 이주시켜 도읍을 정하였다고 한다.<sup>4)</sup> 즉 궁예는 청주의 토착세력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독자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궁예를 따라 철원에 들어간 청주인 ‘一千戶’는 보통의 인민이 아니라 궁예병력의 토대가 되었다.<sup>5)</sup>

어떤 이유로 청주인들이 궁예정권의 핵심세력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된 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6)</sup> 우선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기 이전부터 이미 청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궁예가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나라를 세우고자 뜻을 세운 후 처음 찾아간 사람은 竹州의 세력가 箕萱이었다. 그런데 죽주는 지금의 안성·음성 일대로 청주의 북쪽에 인접한 곳이다. 그곳에서 궁예는 淸州人 申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고

4) 『三國史記』 50, 弓裔傳(天祐元年; 904) 秋七月 移淸州人戶 一千 入鐵圓城爲京.

5) 李基白, 1956, 「高麗京軍考」 『李丙燾華甲紀念論叢』, 1968, 『高麗兵制史研究』 제수록.

6) 이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신호철, 앞의 글(1993), 73~75쪽을 참고하라.

그와 함께 기회를 떠나 北原(지금의 원주)의 梁吉의 부하가 되었다.<sup>7)</sup> 궁예가 몰래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자 최초로 결탁한 사람이 바로 청주출신이다. 궁예가 梁吉의 부하로 있으면서 활동한 지역이 주로 청주를 비롯해서 지금의 음성과 괴산, 충주 등 충청도 일대였다. 나아가 궁예는 이 일대의 지방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 양길을 타도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었다. 즉 궁예 정권하에서 많은 淸州인들이 궁예의 핵심측근으로 활약하였으며, 이들이 곧 철원에 도움을 건설했던 주역이었다. 결국 청주가 ‘궁예세력의 온상’과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건에 의해 궁예정권이 무너진 후 청주 호족들의 동향은 어떠했을까. 대부분의 청주 호족들은 왕건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다. 물론 모든 청주 호족이 왕건에게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왕건에게 협조한 호족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왜냐하면 왕건이 궁예정권 하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청주 호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유명한 ‘阿志泰事件’이다.

淸州人 阿志泰는 본래 아첨하고 간사하더니 궁예가 讒을 좋아하자 같은 청주 사람인 笏全·辛方·寬舒 등을 모함하였다. 有司가 이를 밝혀내려 하였으나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태조가 진위를 가려내어 志泰가 죄를 자복하거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속 시원하게 여기었다. 이로 인하여 專門將校·宗室勳賢·智計儒雅의 무리들이 바람에 쓸리고 그림자처럼 따르지 아니함이 없었다(『高麗史』太祖世家, 乾化 3년).

이 사건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인 912년에 일어났다. 궁예정부의 侍中이던 왕건이 청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주의 지방 세력들이 아지태와 입전, 신방, 관서 등 두 파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여기에

7) 『三國史記』 50, 弓裔傳.

서 아지태는 궁예의 측근으로 관청에서조차 수년 동안 이를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왕건이 개입하여 해결한 것이다. 결국 친궁예세력인 아지태를 왕건이 제거함으로써 그와 대립하고 있던 입전, 신방, 관서 등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이어 918년 6월에는 愛堅·尹全 등 청주출신 軍人 80여 명이 궁예에 의해 처형될 뻔한 일이 발생하였다. 궁예가 청주 출신의 군인 80여 명을 처형하려고 하자, 사형장에 끌려가던 이들을 왕건이 구출한 사건이다. 왕건이 고려 태조로 즉위한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sup>8)</sup> 궁예에 의해 처형당할 뻔 했던 청주출신 군인 80여 명은 아마도 친왕건파였을 것이다. 이들은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는 6월 정변에 가담했던 인물들로서, 그로 인하여 궁예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궁예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죽이려고 했다는가, 왕건이 막 끌려가던 도중에 이들을 구출했다고 한 것을 보면, 궁예가 이들을 죽이려한 시기는 그가 쫓겨나기 직전의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아지태사건을 계기로 왕건은 청주의 호족세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청주세력 중에는 친왕건파가 상당히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궁예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청주의 호족세력들 중에는 고려건국에 대해 불만을 품은 친궁예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청주는 일찍부터 궁예의 세력 기반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왕건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청주 호족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고려 건국 직후에는 청주 세력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친궁예파 청주 호족의 반란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독립해서 다룬 바 있으므로,<sup>9)</sup> 여기서는 그 대강의 추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우선 태조 즉위 다음 달인 918년 7월에 청주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

8) 『고려사』 1, 太祖元年 戊午.

9) 주 3)을 참조.

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때 청주의 領軍將軍인 堅金과 그의 副將인 連翬·興鉉 등이 개경에 올라와 태조를 알현하고 청주 호족들의 동태를 보고하였다. 태조는 개경에 있던 청주인 能達, 文植, 明吉 등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하였다. 이때에 청주와 개경에 있던 在地清州人과 在京清州人들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대립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친궁예파이고 다른 하나는 친왕건파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能達과 영군장군 堅金, 그 副將인 連翬·興鉉 등이고, 후자는 文植, 明吉, 金勤謙, 寬駿, 金言規 등을 꼽을 수 있다.<sup>10)</sup> 결국 태조는 마군장군 洪유와 유금필을 보내 진압하게 하고, 이어 마군장군 능식을 또 파견하여 鎭撫함으로써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어 2개월 후인 918년 9월에는 衙軍吏 林春吉이 모반을 꾀하였다.<sup>11)</sup> 모반을 주도한 임춘길은 청주의 호족세력이다. 그는 친궁예적인 인물로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임춘길의 모반사건은 사전에 마군장군 복지겸에 의해 발각되어 주살되었다.

한 달 후인 10월에는 淸州帥 陳瑄과 宣長 형제가 또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sup>12)</sup> 진선을 淸州帥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진선 형제는 청주의 호족세력임에 틀림없다. 이들 형제 또한 왕건의 즉위에 불만을 가진 친궁예세력이었을 것이다.

이 밖에 왕건 즉위 후에 일어난 반란사건은 그 주모자가 비록 청주 출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청주와 인접한 중부일대에서 일어났다. 馬軍將軍 桓宣吉은 태조 즉위 4일 만에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 건국 후 최초의 반란사건이다.<sup>13)</sup> 그 이틀 후에는 蘇判 宗侃과 內軍將軍 杖鉄가 반란을 일으키다 주살되었다.<sup>14)</sup> 다시 7일 후에는 馬軍大將軍 伊昕巖이 모반을 일으켰다.<sup>15)</sup> 이 세 차례의 반란은 모두 태조가 즉위

10) 『고려사』 92, 王順式附 堅金傳.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신호철, 앞의 글(1993), 11~13쪽을 참조.

11) 『고려사』 1, 태조원년 9월; 『고려사』 127, 桓宣吉附 林春吉傳.

12) 『고려사』 1, 태조원년 10월.

13) 『고려사』 127, 桓宣吉傳; 『고려사』 1, 태조원년 6월 庚申.

14) 『고려사』 1, 태조원년 6월 壬戌.

한 6월에 일어났으며, 앞서 언급한 청주 호족들의 반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반란사건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왕건 즉위 직후에 연이어 일어났다는 점이다. 환선길 형제의 반란, 중간·건부 반란, 이혼암 반란은 고려 건국 직후인 6월에, 영군장군 건금과 관련된 사건은 7월에, 임춘길 반란은 9월, 진선·선장형제 반란은 10월에 각각 일어났다. 둘째, 이들의 출신지가 청주를 비롯한 충북 일대라는 점이다. 領軍將軍 건금, 衛軍吏 임춘길, 淸州帥 진선 형제는 청주의 호족이고, 환선길은 陰竹(지금의 음성일대), 이혼암은 충주출신 호족으로 파악된다. 모두 일찍부터 궁예의 세력기반이 되었던 곳이다. 셋째, 이들 반란사건을 밀고·처형한 인물들이 모두 왕건의 핵심측근이었다. 모두 고려의 개국 1·2등 공신이거나, 이에 준하는 개국공신들이다. 즉 洪儒, 卜智謙, 申崇謙, 裴賢慶 등 1등 공신 모두와, 2등 공신인 能植과 廉濡, 그리고 비록 1·2등 공신은 아니지만 왕건 추대에 있어서 1·2등 공신 못지않은 역할을 한 庾黔弼과 廉蕤이 바로 그들이다. 청주 지방 세력들과 고려 건국세력들과의 대립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왕건은 고려 건국 직후에 일어난 청주 호족 세력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난 후에는 청주 지방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왕건은 즉위 다음 해인 919년 정월에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천도한 후 지방을 순행하였다. 그 첫 번째 순행지가 바로 청주였다.<sup>15)</sup> 왕건의 청주 순행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청주가 아직 왕건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반죄를 구실로 친궁예파 청주 호족세력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淸州가 順逆이 분명치 못하고 訛言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는 당시 청주가 후백제의 접경지역

15) 『고려사』 1, 태조원년 6월 己巳.

16) 청주가 順逆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訛言이 자주 일어나므로 친히 행차하여 慰撫하고 드디어 이곳에 城을 쌓게 하였다(『高麗史』 太祖世家 2년 8월).

이기 때문에 견훤과 연합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견훤은 광주에서 전주로 천도한 후에 본격적으로 충청 내륙지방으로 그 세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910년대 이후에는 이미 견훤의 세력이 충청 북부일대까지 미쳤다.<sup>17)</sup> 실제 청주와 인접한 매곡현(지금의 보은군 회북면)의 호족인 城主將軍 龔直이 후백제에 귀부하여 견훤의 ‘復心’이 된 일이 있었다.<sup>18)</sup>

왕건과 청주호족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 태조의 혼인정책을 들 수 있다. 왕건은 전국의 유력 호족들과 연합하기 위해, 29명의 호족 딸들과 정략적인 혼인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청주호족과는 혼인하지 않았다. 당시 청주는 강력한 호족들이 존재하던 大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호족의 딸은 한명도 태조의 비가 되지 못하였다. 특히 청주와 인접한 鎭州(충북 진천군)의 호족인 鎭川 林氏와, 충주의 호족인 忠州 劉氏는 왕실의 외척이 되어 고려 초기 유력한 중앙귀족이 된 사실과 비교하면,<sup>19)</sup> 태조가 청주의 호족과 혼인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주호족을 경계한 왕건의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 2) 청주 ‘土姓’의 형성과 중앙 진출

고려 건국기에 활동하던 청주의 호족들은 대부분 청주 ‘土姓’이 되었다. ‘土姓’이라는 용어는 1425년(세종 7)에 완성된 『경상도지리지』와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처음 보이지만, 토성이 형성된 것은 고려 초의 일이다. 여기에서 잠깐 토성의 개념과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sup>20)</sup>

17) 신호철, 1993,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8) 『고려사』 92, 龔直傳. 신호철, 1992, 「신라말 고려초 매곡성 장군 공적」 『호서문화연구』 10.

19) 신호철, 1997, 「高麗 建國期の 鎭州豪族」 『중원문화논총』 1; 金壽泰, 1989,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忠州劉氏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 1.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토성은 ‘故籍’과 ‘關’에 기재되어 있는 성씨를 말한다. ‘고적’이란 고려 초기부터 전해 오는 성씨관계 자료이며, ‘관’은 공문서의 일종으로 지리지의 편찬을 위해서 각도에서 보고한 성씨관계 기록을 담은 문서이다. 결국 토성은 본래 고려 건국 이래 전래되어 오던 중앙 소장의 ‘郡縣姓氏관계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성씨를 지칭하는 것이다.

토성은 고려시대 군현의 행정구역 형성 및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 분화, 소멸되었다. 토성의 형성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적으로 군현을 개편하면서 비롯되었다. 군현 개편과 함께 각 군현에 토착해 있던 호족세력들에게 토성을 分定한 것이다. 토성으로 분정된 성씨집단은 그 군현의 재지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으로 주로 戶長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성은 고려 초기 이전부터 각 군현에 토착해 있던, 그 군현 명을 본관으로 한 姓團을 일컫는 것이다. 각 군현의 토성 수는 대체로 그 구역의 규모와 비례하는데, 大邑의 경우 7~10개의 토성이, 중·소읍은 4, 5개의 토성이, 그리고 향·소·부곡과 촌에는 1, 2개의 토성이 존재하였다. 토성은 신라시대 이래 각 읍에 토착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집단이다. 이들 중에는 신라 귀족 姓인 경우가 많았고, 고려 왕조의 성립과 함께 賜姓을 받는다든지, 또는 호족들이 스스로 稱姓하면서 각 군현의 토성이 되었다.

고려 전기에는 지방의 토성이 上京從仕하면서 문벌귀족이 되었고, 한편 자신의 출신지에 그대로 남아 향직을 담당하면서 在地吏族으로 분화되었다. 토성이 중앙으로 진출하여 귀족화되는 경우는 재지적 기반의 강약에 비례해, 중소 군현의 토성보다는 府나 牧 출신이, 屬縣보다는 主邑 토성이 유리하였다. 향·소·부곡 등지의 토성은 고려 전기까지 중앙 진출이 거의 없다가 후기부터 士族으로 성장하였다. 중앙의

20) 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후 토성에 대한 서술은 주로 이수건의 견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官人 가운데 토성 출신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방의 토착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려 후기에 일반화되었다.

고려 전기까지는 대읍 토성의 진출이 활발하다가 후기 내지 말기에는 중·소 군현 토성의 진출이 왕성하였다. 전기의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후기의 신흥사대부도 대부분 토성에서 나왔다. 따라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名門鉅族은 土族과 함께 吏族을 겸하고 있었다. 1525년에 간행된 成俔의 『慵齋叢話』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鉅族은 모두 군현의 土姓에서 나왔다”고 하였다.<sup>21)</sup> 이처럼 조선시대의 양반가문들 역시 대부분 고려시대 군현 吏族의 후예였다. 토성 이족은 재경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중앙으로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특히 무신란 이후 신분상의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고, 또 元의 간섭 이후에는 지방의 향리들이 중앙으로 진출해 사족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사족과 이족의 분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촉진되었다. 같은 土姓이면서 한쪽은 서울로 진출해 在京貴族이 되고, 다른 한쪽은 다시 향리에 남아 在地吏族으로 구분되어 점차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더욱 진전되어 갔다.

이제 청주의 土姓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청주 토성은 언제 형성되었으며, 또 청주 토성 중 누가, 언제, 어떻게 上京從仕하여 문벌귀족이 되었고, 또 누가 在地吏族으로 남아 향직을 담당하고 있었을까. 하나하나 탐구해 보기로 하자.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청주는 1개의 屬縣(靑川縣)과 1개의 鄉(周岸鄉), 2개의 所(椒子所·背音所)를 거느리고 있었다. 위의 지리지에 의하면, 청주에는 12개의 ‘토성’과 4개의 ‘亡村姓’이 있다. 즉 청주 읍치에 12개의 토성, 읍치 주변의 촌락에 4개의 村姓이 있었던 셈이다.

청주의 12개 토성은 韓, 李, 金, 郭, 孫, 慶, 宋, 高, 俊, 楊, 東方, 鄭씨이다. 亡村姓은 朴, 韓, 申, 葛씨이다. 망촌성은 청주 주변 촌에 토착

21) 『慵齋叢話』권 1, 我國鉅族條.

해 있던 성으로 고려시대에 이미 流亡한 성을 말한다. 다음 來姓은 皇甫씨로 이는 고려 초에 개경에서 이주한 성이다. 또 續姓은 西門씨로 고려 후기에 청주로 이주한 성이다. 亡來姓이 5개로 王, 盧, 柳, 洪, 金씨이다. 각각 개경, 포천, 목천, 회인, 경주에서 청주로 이주한 성으로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당시에 이미 유망한 성을 말한다.<sup>22)</sup> 한편 16세기 중반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주목 성씨 조에는 토성 및 망성, 래성, 속성 등의 용어가 보이지 않지만 청주 소관 성씨의 대장은 실록의 지리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에 모두 16개의 토성(12개의 토성과 4개의 촌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大邑일 경우에도 대개 10개 내외의 토성이 있었으므로, 청주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토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公州牧의 경우, 토성이 7개이고 촌성 3개로 모두 10개이고, 安東府의 경우는 토성 7개, 촌성 1개로 모두 8개이다. 洪州牧의 경우는 토성 5개이고 촌성 3개로 모두 8개이고, 光州牧의 경우는 토성 13, 촌성 1로 모두 14개, 黃州牧의 경우는 토성이 11개이고 촌성 1개로 모두 12개이다. 청주의 토성이 16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청주의 토착세력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했으며, 아울러 청주의 지방 세력이 상당히 강력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다.

청주 토성은 언제 형성되었을까. 아마도 그 대부분이 고려 건국 초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조는 후삼국 통일 후, 전국의 각 군현을 개편함과 동시에 군현별로 土姓分定을 실시하였는데, 청주 또한 이때에 지명의 개편과 함께 토성분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16개의 성씨집단이 모두 한꺼번에 청주의 토성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 청주의 성씨집단 중에는 이미 고려건국 이전부터 성씨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일찍부터 강력한 토착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이미 언급한 마이거니와, 앞에서 살펴본 阿志泰, 筮全, 辛方, 寬舒, 陳瑄·宣長 형제, 玄律, 堅金, 連翬, 興鉉, 能達, 文植, 明吉, 金勤謙, 金寬駿, 金言

22) 『세종실록지리지』 忠淸道 淸州牧 土姓條.

規, 林春吉 등은 모두 후삼국기에 활동한 청주의 유력한 토착세력이 분명하다. 이들 중 대부분이 성씨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勤謙, 金寬駿, 金言規, 林春吉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姓이 없이 이름만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궁예, 견훤, 왕건 등도 모두 스스로 稱姓한 인물이다.

위의 청주 호족들이 후삼국 통일 후에 어떤 토성을 分定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 대부분은 토성분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거나, 그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몰락하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 초기 청주 토성의 실태를 잘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청주에 존재하는 당대의 금석문인 <龍頭寺鐵幢竿記><sup>23)</sup>가 바로 그것이다. 이 철당간은 고려 초(962)에 설립된 것이고, 더구나 이것은 청주에서 활동하던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건립한 것이므로, 고려 초기 청주 호족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당간의 명문에는 이를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직위, 역할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당간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을 姓氏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 아래의 <표-1>다.

<표-1> <龍頭寺鐵幢竿> 건립에 참여한 인물의 분석<sup>24)</sup>

姓氏	人名	役割	職位(官等)
金氏	金芮宗	檀越兼令	堂大等
	金希一	檀越兼令	堂大等
	金守○	檀越兼令	大等
	金釋希	檀越兼令	大等

23) 龍頭寺鐵幢竿은 고려 光宗 13년(962)에 건립된 것이다. 현재는 높이 63cm, 직경 40cm의 원통형 鐵筒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원래 30개였다고 한다. 幢竿記는 아래로 부터 3단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하다. 3백 60여 銘文이 새겨져 있다. 현재 청주시 남문로 2가 도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보 제 41호로 지정된 청주의 중요한 문화재이다.

24) 신호철, 앞의 책(2002)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139쪽의 <표>를 재인용한 것임.

	金寬謙 金遠	檀越兼令 撰兼書者	大等
孫氏	孫熙 孫仁謙 孫錫	監司 監司 鑄者	奈麻(前侍郎) ? (學院郎中)
慶氏	慶柱洪 慶奇俊	監司 監司	奈麻(前兵部卿) 大舍(前司倉)
韓氏	韓明寔	監司	奈麻(學院卿)

철당간 건립을 주도한 인물은 모두 14명으로, 이중 姓氏를 알 수 없는 승려 두 명을 제외한 12명은 金씨가 6명, 孫씨가 3명, 慶씨가 2명, 韓씨가 1명이다. 4개의 姓 모두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청주 土姓이다.

위의 명문에 의하면, 4개의 토성집단이 당간건립을 주도하였고 각각 맡은 역할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성씨별로 그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金芮宗과 金希一은 從兄弟 간으로 지방 호족의 首長級인 堂大等이었다. 그리고 金守○, 金釋希, 金寬謙 등 3인은 大等이었다. 이들 김씨들이 堂大等과 大等の 직위를 독점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네 개의 토성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김씨는 모두 檀越兼令이었다. 檀越兼令이란, 檀越과 승을 겸했다는 뜻으로 아마도 당간 건립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당간 건립을 실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金氏들은 당간건립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다른 토성집단들의 대표 격인 위치에서 당간건립을 총괄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주도세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孫氏·慶氏·韓氏 등은 그들의 역할이 모두 監司로 되어있다. 監司는 아마도 당간 건립에 필요한 力役을 동원하거나 물품을 조달하는 등 실무적인 차원의 감독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의 官等은 모두 奈麻 혹은 大舍로서 당대등이나 대등이었던 김씨와는 대

조된다. 이중에 孫氏인 孫希, 孫仁謙, 孫錫의 지위는 각각 前侍郎, 學院郎中 및 鑄者이다. 이로 보면 이들 손씨는 주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김씨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반면에 경씨인 慶柱洪과 慶奇俊은 각각 前兵部卿과 前司創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力役의 동원이나 물품의 조달 등과 같은 실무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韓明寔은 學院卿이었던 것으로 보아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sup>25)</sup>

청주 토성 12개 중에 철당간에 보이는 4개의 토성 외에 다른 청주 토성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 중 청주에서 활동했던 재지세력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중앙으로 진출한 官人層이다.<sup>26)</sup> 따라서 청주 토성 중,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으로 활동했던 가문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다.

청주의 12개의 토성 가운데 청주 김씨와 청주 이씨, 청주 광씨는 청주의 강력한 재지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 초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여 고위 官人을 배출하는 등 일찍부터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다. 반면에 청주 한씨, 청주 정씨, 청주 경씨는 고려 후기에 중앙으로 진출한 경우이다. 청주 손씨, 청주 송씨, 청주 양씨 및 청주 고씨는 중앙의 官人으로 활동한 경우가 간혹 보이긴 하지만, 문벌 귀족으로 크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다. 청주 준씨와 청주 동방씨는 稀姓으로 그 성세가 미약하여, 중앙에서 활동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주의 재지세력으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듯하다.

25) 위의 관직명 중에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학원경’과 ‘학원낭중’이다. ‘학원’이라는 관부 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당간에 보이는 관직이 고려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청주호족들의 독자적인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고려 초에 이미 청주 호족들이 자체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자체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가 문화와 교육의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그 연유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6) 현재 남아 있는 기록들은 『고려사』 열전, 묘지명, 금석문, 문집 등으로 주로 중앙에서 활동한 인물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청주 토성은 고려 건국 기에는 청주 지방의 대표적인 토착 세력이었지만, 몇몇 토성집단을 제외하고는 문벌 귀족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族勢가 크게 약화되어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렇다 할 기록을 남기지도 못하였다. 이들 토성들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청주의 재지세력으로도 활동하지 못한 채 서서히 유망·소멸되어 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청주출신 문벌귀족의 세력변화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이 되었거나 재지세력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청주 토성의 흥망성쇠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청주 토성의 姓勢의 消長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려사』 열전, 묘지명, 금석문, 문집 등의 자료 외에 각 성씨의 족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족보를 참고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족보는 조선중기 이후에 편찬되기 시작하였고 또 18세기에 이르러 보학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족보편찬이 성행하게 되지만, 이때에는 이미 고려시대의 先代 世系에 대해서는 미처 그 계보를 찾지 못하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선조를 소급하여 미화·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 초기에는 12개 청주 토성 중, 청주 김씨가 가장 강력한 성씨집단이었다. 청주 김씨는 일찍부터 중앙에 진출하여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청주의 재지 호족으로도 강력한 족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우선 在地세력으로는, 앞에서 검토한 <龍頭寺鐵幢竿>의 명문을 통해서도 당시 그들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金芮宗과 金希一은 堂大等 직을 계승하였고, 다른 김씨도 모두 大等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청주의 토성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김예중을 ‘州里豪家 鄉閭官族’이라고 한 것이라든가, 김석희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충주에 있는 <淨土寺法鏡大師碑>에도 그 이

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김씨는 청주 뿐 아니라 인근의 충주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명문을 찬하고 쓴 金遠은 그 관직이 前翰林學生인 것으로 보아 중앙에 진출한 인물로 짐작된다. 그가 중앙에서 翰林學生의 직을 역임한 학문적 배경이나 권위 등으로 인해 撰과 書를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당간기를 통해 당시의 청주 金氏는 재지세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중앙에 진출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청주 김씨는 고려 건국 이전에 이미 중앙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후삼국기에 활동한 金勤謙, 金寬駿, 金言規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거니와, 이들은 청주 토성인 청주 김씨가 분명해 보인다.<sup>27)</sup> 그렇다면 청주 김씨는 토성분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김씨 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에 중앙에 진출한 청주 김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金兢律이다. 그의 두 딸은 각각 2대 惠宗과 3대 定宗의 비가 되었다. 그의 가문이 고려 초부터 이미 중앙으로 진출하여 2대에 걸쳐 왕실의 외척가문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한편 고려전기 청주 김씨의 활동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 金德謙 墓誌가 있다.<sup>29)</sup> 이는 의종 4년에 寶文閣校勘 黃文通이 지은 것이지만, 여기에 6대에 걸친 그의 先代 世系가 기록되어 있다.<sup>30)</sup> 이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보면, 김덕겸의 6세조인 金勤謙은 바로 앞 절에서 검토한 淸州領軍將軍 堅金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친궁예파인 견금과 대립하면서 왕건을 도와 청주의 친궁예파를 제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의 墓誌에 의하면, 그의 관직이 守司徒三重大匡이었다고 한다. 고려 건국 기에 공을 세운 三韓

27) 이들이 청주 김씨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李樹健이 언급한 바 있다(이수건, 앞의 책(1984), 180쪽).

28) 『고려사』 88, 后妃, 惠宗, 定宗夫人.

29) 김용선, 2012,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 출판부, 172~177쪽; 李蘭映 編, 『韓國金石文追補』 金德謙 墓誌, 123~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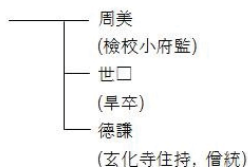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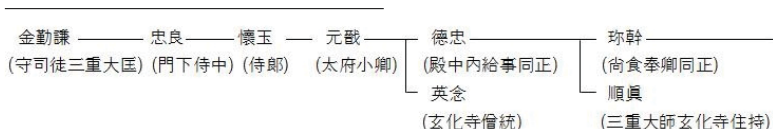
30) 金勤謙부터 6대손 德謙까지의 世系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功臣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김근겸의 아들 金忠良과 손자 金懷玉이 각각 門下侍中과 侍郎을 역임했다고 하였으나, 『고려사』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의 후손 또한 모두 중앙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즉 4세인 元猷은 大府少卿, 5세 德冲은 殿中內給事同正, 6세 珎幹은 尙食奉御同正을 지냈다.

한편 김덕겸의 從祖인 英念과 叔父인 順眞, 그리고 그 자신은 3대에 걸쳐 모두 僧統으로 玄化寺의 住持를 역임하였다. 이처럼 청주 김씨는 고려 중기에 중앙에서 僧·俗 양계에 걸쳐 대단히 큰 세력을 떨쳤던 가문으로, 특히 인종 대에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던 仁州 李氏인 이자겸세력과 대항하면서 玄化寺를 중심으로 불교교단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sup>31)</sup>

이처럼 청주 김씨는 고려 전기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한 강력한 문벌귀족이었으나, 무신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族勢가 급격히 쇠퇴한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왜 이처럼 갑자기 소멸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도 정치적 이유로 등으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제거당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청주 김씨는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면 더욱 더 쇠락하여, 그 가계 기록조차 遺傳되지 못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주 김씨가 배출한 인물로는 고려전기에는 3품 이상의 官人 6명(김근겸, 김공률, 김언규, 김충량, 김희옥, 김원전), 功



31) 이수건, 앞의 책(1984), 181쪽.

臣 1명(김근점), 后妃 2명(혜종 비, 정종 비)으로 모두 9명이나, 무신난 이후 고려말기까지 3품 이상 관인이나 공신이 전혀 없다. 한편 조선 전기에 成俔이 쓴 『용재총화』에 기록된 15세기 청주의 鉅族 명단에도 청주 김씨는 보이지 않는다.<sup>32)</sup> 결국 청주 김씨는 무신란을 전후해서 크게 몰락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더 이상 명문거족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유망하게 된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 청주 이씨는 청주 김씨 다음가는 고려전기의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다. 청주 이씨는 삼한공신인 李希能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처음 나오는 청주 이씨의 인물로는 李謙宜가 있다. 그는 성종 3년 主農卿에서 御事禮官侍郎이 되었고, 刑官御事로서 압록강에 나가 築城하다가 여진의 포로가 되었다.<sup>33)</sup> 그의 후손인 李公升 열전에 의하면, 이공승의 6대조가 李希能이고 5대조가 謙宜로 이들 부자가 태조를 도와 삼한공신이 되었다. 청주이씨는 청주 호족세력으로 고려 건국기에 태조를 도와 삼한공신이 되면서 일찍부터 중앙으로 진출하여 귀족으로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전기에 중앙 귀족으로 활동한 청주 이씨 중에는 王可道가 가장 유명하다.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그의 본래 이름은 李子林이다. 성종 대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서경에 파견되어 西京掌書記를 지냈다. 현종 때 서경유수관관으로 승진하였는데 왕이 서경에 왔을 때 반란을 일으킨 상장군 崔質·金訓을 제거한 공로로 同知中樞事를 거쳐 戶部尙書가 되었고 致盛功臣號를 받았다. 그 후 參知政事에 올라 上柱國開城縣開國伯의 작위와 王씨 성을 賜姓받아 왕씨가 되었다. 그의 딸이 德宗의 妃가 되었고 이로 인해 문하시랑내사평장사에 올랐다.<sup>34)</sup>

고려 후기에 활동한 청주 이씨로는 앞에서 언급한 李公升이 있다. 그는 청주에서 태어났다. 인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直翰林院을 거쳐

32) 『慵齋叢話』 권 1, 我國鉅族 조에는 15세기의 대표적인 名門鉅族 75개의 姓貫이 실려 있는데, 청주를 본관으로 한 성씨로는 청주 이씨, 청주 박씨, 청주 한씨, 청주 정씨, 청주 경씨의 5개 가문이 있다.

33) 『고려사』 3, 성종세가 3년 5월 庚戌.

34) 『고려사』 74, 王可道傳.

右正言을 지냈으며, 金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문장이 탁월하여 樞密院知秦事, 參知政事에 올랐다. 무신난을 일으킨 李義方이 명종 3년(1173) 문신들을 학살할 때 제거될 뻔하였으나, 문하생인 文克謙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 후 이공승의 아들인 李椿老는 참지정사를 역임하였고, 다른 아들 李桂長은 守太傅로 지공거를 4회나 맡았다. 이들 이공승 3부자는 무신정권하에서 대표적인 문신으로 활약하였다.<sup>35)</sup> 이처럼 청주 이씨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 더욱 번창하여 당대의 최고 명문으로 활동하였다.

청주 이씨가 배출한 인물 중에 고려전기에는 3품 이상의 官인이 7명이고, 功臣이 1명, 지공거를 역임한 회수가 4회, 后妃 2명으로 모두 14명에 이른다. 한편 무인집권기에 3품 이상 관인은 3명, 원 간섭기에서 고려 말까지 3명을 배출하였다. 이후 청주 이씨는 『용재총화』의 15세기 청주의 거족 명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서도 그 族勢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청주 이씨는 고려 건국 초기에 이미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특히 덕종 때 왕가도(이자림)가 왕실의 외척이 됨으로써 문벌귀족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무인정권기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명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원간섭기와 고려말기의 권문세족을 거쳐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청주의 대표적인 명문거족으로 활동하였다.

다음, 청주 박씨는 고려 전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고려전기 중앙에서 활동한 인물로 郭元和 郭尙이 가장 유명하다. 박원은 청주에서 태어나 성종 15년 과거에 甲科로 급제하여 起居舍人에 이르렀으며, 현종 대에 中樞直學士를 거쳐 參知政事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宋과 거란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특히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거란의 침입에 대한 援軍을 청하였다. 송나라에서 돌아온 후 禮部侍郎 翰林學士를 거쳐 刑部尙書를 역임하였다. 推誠文理功臣 호를 받았고 동왕 18년에 참지정사로 승진하였다. 그는 성품이 청렴하고 文詞와 吏幹에도 능하였으며, 지공거를 역임하기도 하였다.<sup>36)</sup>

35) 『고려사』 79, 李公升傳.

郭尙의 활동도 눈에 띈다. 광상은 처음에는 아전으로 있다가 宣宗이 왕위에 오르자 태자시절 그를 보필한 공로로 감찰어사에 올랐다. 숙종과 예종 대에 내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참지정사까지 올랐다. 그는 윤관이 화폐사용을 건의했을 때 고려의 풍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화폐사용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로 郭坦과 郭興이 있는데, 광여는 과거에 급제하여 睿宗과 문학적인 교류가 밀접하였는데, 왕은 그를 선생이라 부르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예종과 仁宗의 두 왕에게 극진한 충애를 받았다.<sup>37)</sup> 그의 시가 『東文選』에 실려 있다.

청주 광씨는 고려 후기에도 중앙의 귀족으로 활동하였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郭預가 있다. 광예는 고종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全州司錄이 되었다. 그 후 원종 4년(1263)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왜구의 침략을 항의하고 잡혀간 고려인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충렬왕이 즉위한 후 右副承旨 겸 同知貢擧 등을 역임하였으며, 동왕 12년(1286)에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길에 병사하였다.<sup>38)</sup>

광예의 손자인 郭麟은 충렬왕 11년(1285) 급제하여 文翰署에 들어갔으며 문장이 능하였다고 한다. 충렬왕 13년(1292)에 太僕尹 金有成과 함께 일본에 書狀官으로 갔다가 일본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청주의 추동에 토지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목은 이색이 지은 永慕亭記에 의하면, 郭麟이 청주의 楸洞에 永慕亭을 짓고 別墅를 경영하였다고 한다. 청주 광씨의 재지적 기반을 짐작하게 해주는 기록이다.

『청주광씨세보』에 의하면, 청주에 처음 入鄕한 사람은 郭延俊으로 되어 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匡靖大夫判開城府使, 典法判事를 역임하였으며, 충정왕 2년에 淸原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그의 만년에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옛 楸洞으로 낙향하여 비로소 청주를 본관으로

36) 『고려사』 94, 郭元傳.

37) 『고려사』 97, 郭尙傳.

38) 『고려사』 106, 郭預傳.

삼았다고 한다.<sup>39)</sup> 그러나 과연 청주의 토성인 청주 곽씨가 고려 말기인 충정왕대에 처음 청주를 본관으로 삼았다는 족보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마도 중앙에서 활동하던 그가 은퇴 후에 청주로 낙향한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한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고려 말에 활동한 인물로는 郭樞가 있다. 그는 공민왕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성을 지냈으며, 이후 예문관 직제학과 밀직사사, 知申事를 역임하였다. 우왕 9년에 上黨郡에 봉해졌다.

이상 청주 곽씨는 고려 전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 귀족이 되었으며, 고려 후기에도 중앙에서 꾸준히 族勢를 유지하였다. 한편 고려의 전 시기에 걸쳐 청주에 재지적 기반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용재총화』의 15세기 청주의 거족 명단에 청주 곽씨가 보인다. 그렇다면 청주 곽씨는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에서 후기에는 권문세족으로, 그리고 조선시대의 명문거족으로 그 姓勢가 지속된 청주 토성 중 대표적인 姓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주 한씨는 고려 초기에 강력한 토착세력 중의 하나였다. <용두사철당기>에 보이는 韓明寔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청주한씨족보』에 의하면, 청주 한씨의 시조는 韓蘭이다. 한란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 正史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李穡이 쓴 韓公義·韓脩 부자의 墓誌에 보인다.<sup>40)</sup> 이에 의하면, 그는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고려군을 거느리고 청주를 지나갈 때 군량을 제공하고, 이어 왕건을 따라 종군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 공으로 그는 開國壁上功臣이 되었고 벼슬이 三重大匡太衛에 미쳤다고 한다.<sup>41)</sup>

39) 『청주곽씨세보』.

40) 『牧隱文集』 16, 重大匡清城君諡平簡公韓公墓誌銘并序; 같은 책 15, 韓文敬公墓誌銘并序.

41) 지금 청주시 남일면 가산리 방서동에는 그의 묘소를 비롯하여, 그가 판우물이라고 하는 方井(지방문화재)과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었다는 務農亭(지방문화재) 등 그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다. 고려 초기 이 일대가 청주 한씨의 세력 근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한씨는 고려 전기에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 귀족으로 활동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청주 한씨 중에 『고려사』 열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고려 후기의 韓康이다. 그는 고종 때에 급제하여 中贊을 역임하였다.<sup>42)</sup> 그의 아들인 韓謝奇는 諫議大夫를, 손자인 韓渥은 中贊을, 한약의 네 아들인 大淳, 公義, 仲禮, 方信은 각각 지침의사, 봉군, 정당문학, 찬성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청주 한씨가 중앙에 진출하여 귀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韓康부터이며,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청주 한씨로 중앙에 진출하여 3품 이상 官人을 배출한 경우는 고려 전기와 무신집권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원 간섭기에서 고려 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9명이 있다. 이처럼 청주 한씨 가문은 문반의 성향을 가지면서 원의 배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고려 말기 이래 대대로 고관요직을 세습하였다. 한약의 아들 중에 공민왕 시해사건에 연루된 韓方信계는 몰락하였지만, 韓公義계는 1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청주의 거족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조선 전기에도 계속 족세를 유지하여, 15세기 청주의 거족으로 활동하였다.

다음, 청주 慶氏는 고려 초기부터 청주를 지배하던 호족세력이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용두사철당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경씨족보』에 의하면, 그 시조가 무인정권기 최고 집권자였던 경대승의 아버지인 慶珍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조선 시대에 족보를 편찬하면서 그 이전의 세계를 찾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위의 철당간기에 보이는 慶柱洪과 慶奇俊은 청주 경씨가 분명하고 경진의 선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주 경씨가 언제 중앙으로 진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적어도 고려 중기인 문종 대(1046-1083)에는 중앙에 진출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문종 11년(1057)에 慶鼎相이 權知直翰林院에 임명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43)</sup> 경정상은 청주 慶氏임이 틀림없을 것이

42) 『고려사』 107, 韓康傳.

43) 『고려사』 세가, 문종 11년 8월.

다. 그가 한림원에 임명되기 이전에 秘書省 校勘이라는 관직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때 이미 중앙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정에서 그의 신분을 문계 삼아 清要職 임명에 반대한 것을 보면, 청주 경씨 가문이 아직 중앙의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 경씨는 무신정권기에 크게 활약하였다. 즉 慶珍과 慶大升 부자는 중앙의 유력한 무신가문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경진은 明宗 대에 증서시랑평장사를 지냈고, 그의 아들인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하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장악하여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44)</sup> 무신난을 전후해서 경진이 증서시랑평장사를 지냈다는 것, 경대승이 15살의 나이에 蔭補로 정 9품인 校尉 직을 제수받은 것을 보면 그의 가문이 무신난 이전에 이미 상당한 지위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청주 경씨들은 고려 말기에 중앙의 권문세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청주경씨족보』에 一世祖로 나오는 慶番은 고려 고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戶部尙書를 지낸 인물로, 그 후 3대에 걸쳐 중앙에서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아들인 慶綏는 충렬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典法判事 通禮門事를 역임하였고, 경수의 아들인 慶斯萬은 충숙왕 8년에 左副代言, 동왕 11년(1324)에 右代言를 지냈으며, 충숙왕이 원에 억류되어 있을 때에 국왕의 환국을 요청하여 심양왕 일파의 미움을 받기도 하였다.

고려 말에 활동한 청주 경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慶復興이다. 그는 경사만의 아들로 공민왕 초에 軍簿司判書로 등용되어 樞密院判事·參知門下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친원파인 奇黻 일파를 숙청한 공으로 1등 공신에 올랐다. 1363년에 원나라에 도망가 있던 崔濡가 공민왕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던 奇皇后를

44) 『고려사』 100, 慶大升傳.

45) 경대승 先代 및 그 출신에 대해서는, 신호철, 2013, 「경대승정권의 성립」 『역사와 담론』 67, 200~207쪽.

설득하여 공민왕을 폐하고 德興君을 옹립하기로 모의했다. 최유는 德興君을 추대하여 군사 1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였는데, 이때 경복흥은 서북면도원수가 되어 李珣·崔瑩 등과 함께 이를 물리치고 左侍中에 올랐다. 辛旽이 집권할 때 그와 대립되어 신돈을 제거하려다가 발각되어 興州로 유배되기도 했으나, 1371년 신돈이 주살되자 풀려나서 다시 좌시중이 되었다.<sup>46)</sup>

청주 경씨로 중앙에 진출하여 3품 이상 官人을 배출한 인물로는, 고려 전기에는 보이지 않고, 무신집권기에 2명, 원 간섭 기에서 고려 말까지 3명이 있다. 이후 청주 경씨는 『용재총화』의 15세기 청주의 鉅族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선 전기에도 계속해서 중앙에서 族勢를 유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청주시 지북동 일대에는 청주 경씨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다. 청주 경씨의 1, 2, 3 世祖인 경번, 경수, 경사만 3대의 묘소와 경대승 신도비, 조선시대 효자로 알려진 경연 묘소와 그의 효자비<sup>47)</sup> 등 이곳 일대가 청주 경씨의 본래 기반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청주 鄭氏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청주 정씨의 시조는 鄭克卿으로 고려 의종 때에 別將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청주 정씨는 鄭顥이다. 그의 열전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別將인 정극경이고 아버지는 鄭孝聞이다. 그는 고종 4년 臺吏로 출사하여 무공으로 대장군에 올랐던 인물이다.<sup>48)</sup> 비록 당시 그의 家系는 한미하였지만, 고종 20년 그가 서경의 반란세력에 의해 순절함으로써 마침내 국가적인 우대를 받아 그 후손들이 명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아들인 鄭儼은 監察御史를 지냈으며, 정현의 아들인 鄭楮는 都僉議贊成事를 역임하였다. 정해의 두 아들인 鄭愼와 鄭怡는 각각 上護軍과 版圖判書를 지냈다. 또 정해의 딸은 청주 경씨인 경사만과 혼인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사만은 청주 경씨로

46) 『고려사』 111, 慶復興傳.

47) 지금 이곳 마을의 地名은 孝村으로, 경연의 효자비(지방문화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48) 『고려사』 100, 鄭顥傳.

代言을 지냈고, 그의 아들 경복흥은 시중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권문 세족이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鄭曄의 두 아들인 鄭顯과 鄭輔는 고려 말에 각각 僉議評理와 左司議大夫라는 고관직에 올랐다. 이처럼 청주 정씨는 고종 대에 鄭顯이 대장군으로 출세한 후 그의 자손들은 고려 말까지 계속해서 족세가 크게 번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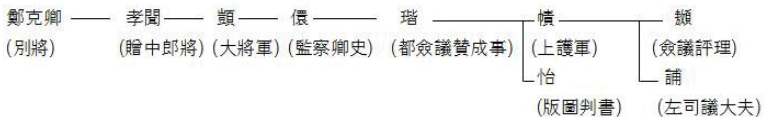
청주 정씨는 청주 경씨를 비롯하여 청주 한씨, 안동 김씨(金方慶계)와 양친 허씨(許珙계), 문화 유씨 등 당대의 최고가는 권문세족과 통혼하였다. 이후 청주 정씨는 원 간섭시기에는 권문세족의 기반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성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鄭誦의 손자인 鄭摠과 鄭擢은 마침내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 되었다.<sup>49)</sup>

청주 정씨로 중앙에 진출하여 3품 이상 官人을 배출한 인물로는 고려전기와 무인집권기에는 찾아 볼 수 없고, 원 간섭기에서 고려 말까지 4명이 있다. 청주 정씨가 15세기 청주의 거족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크게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앙에 진출한 청주 토성은 조선 중기 이후에 그 가문의 성쇠가 크게 변화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성한 가문의 대표적인 예는 청주 한씨이다. 조선 중기(1506-1720)에 문과 급제자를 20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으로 청주에 본관을 둔 성씨는 청주 한씨 하나뿐이다. 또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司馬試 합격자의 성관을 통계·분석한 연구에 의하면,<sup>50)</sup> 1위에서 30위까지의 가문 중에 충청도에는 3개 가문이 있는데 그중 청주 한씨가 1위이고, 그 다음이 한산 이씨, 진의 이씨이다.

한편 조선 후기 각 성씨별 雜科 합격자 배출 수에 대한 통계에 의

49) 청주 정씨의 세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면,<sup>51)</sup> 단연 청주 한씨가 압도적으로 많다. 청주 한씨의 경우 譯科 합격자 수가 84명으로 전국 성씨 중 7위이다. 醫科의 경우는 22명으로 19위, 雲科는 25명으로 7위, 律科는 43명으로 1위, 籌學은 9명으로 30위에 해당된다. 청주 한씨는 모든 분야의 잡과에 합격자를 배출하여, 총 183명에 달하며, 전체 성씨 중 상위 5번째에 해당된다. 결국 청주 한씨는 조선 후기에도 士族과 吏族의 두 신분에 걸쳐 모두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부 성씨들은 특정 분야에만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청주 경씨의 경우, 籌學 합격자가 20명으로 19위이고, 청주 최씨는 譯科 합격자 수가 36명으로 26위이다. 이들 두 가문은 각각 주학과 역과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주의 토성은 조선후기에 오면 수도와 멀리 떨어진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달리, 재지 吏族이 격감되는 동시에 上京從仕하거나 妻鄉이나 外鄉을 따라 거주지를 옮김에 따라, 청주관내에 세거하는 경우는 청주 한씨 외에 다른 청주의 토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 4. 맺음말

후삼국기 청주에는 강력한 토착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주는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대립하는 접경 지역으로, 청주 호족세력의 항배가 후삼국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청주 호족은 궁예의 핵심 세력으로 궁예정권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청주 지방 세력은 분열되었다. 궁예정권 말기 청주 호족은 친 궁예파와 친왕건파로 분열되었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친궁예파 청주호족들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왕건은 이들 청주 호족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왕건은 청주 호족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태조로 즉위한 후

51) 李成茂·崔珍玉·金喜福 공편, 1990, 『朝鮮時代 雜科合格者總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수건, 앞의 책(2003), 306~307쪽.

처음으로 지방을 순행한 곳이 청주였다. 이는 청주의 지방 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려 초 청주의 호족은 ‘土姓’을 分定받았다. 토성으로 분정된 성씨 집단은 그 군현의 재지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으로 주로 戶長層이었다. 각 지방의 토성집단은 그 일부는 상경종사하면서 중앙의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고, 한편 자신의 출신지에서 향직을 담당하면서 在地吏族으로 분화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청주에는 12개의 土姓과 4개의 亡村姓이 있었다.

고려 초기 청주 토성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용두사철당간기>가 있다. 이 당간기에 의하면, 고려 초기 청주를 지배하던 金·孫·慶·韓氏의 토성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청주 김씨가 가장 강력한 지배세력이었다.

청주의 12개의 토성 가운데 청주 김씨와 청주 이씨, 청주곽씨는 강력한 재지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고려 초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여 고위 官人을 배출하는 등 일찍부터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고려 초기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청주 김씨는 후기에 이르러 급격히 族勢가 쇠퇴하여 더 이상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쇠망하였다. 반면에 청주 이씨와 청주 곽씨는 고려후기에도 계속해서 권문세족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명문거족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姓勢가 지속된 청주의 대표적인 姓團이었다.

청주 한씨, 청주 정씨, 청주 경씨는 고려 후기에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청주 한씨의 경우, 고려 말기에 중앙에서 고관요직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하였고, 조선 전기에도 계속해서 족세를 유지하여 15세기에는 청주의 명문귀족으로 성장하였다. 청주 경씨는 무인정권 기에 정대승이 최고집권자가 되면서 중앙의 명문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고려 말기에도 권문세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조선 전기에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여 15세기의 명문거족에 포함되었다. 청주 정씨는 고려 말에 중앙으로 진출하여 원 간섭기에 크게 성장한 가문이다. 그 후 이성계를 도와 조선건국에 참여하면서 개국공신이 되었다. 이후 15세기 명

문거족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청주 손씨, 청주 송씨, 청주 양씨, 청주 고씨는 중앙의 官人으로 활동한 경우가 간혹 보이긴 하지만, 문벌 귀족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청주 준씨와 청주 동방씨는 그 성세가 미약하여,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청주 재지세력으로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논문접수: 2013. 11. 10, 심사시작: 2013. 11. 20, 심사완료: 2013. 12. 2]

주제어 : 청주 호족, 청주 土姓, 청주 김씨, 청주 이씨, 청주 곽씨, 청주 한씨, 청주 경씨
--

<ABSTRACT>

**A Study on the Advancement into Central Power and the Changes of Cheongju(淸州) Local Power in Goryeo Dynasty : Centering on Tosung(土姓) of Cheongju Region**

Shin, Ho-cheol

A Study on the Advancement into Central Power and the Changes of Cheongju Local Power in Goryeo Dynasty: Centering on Tosung of Cheongju Reg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tical transition of Cheongju's local powers, including time period and process, in relation to their advance into the center and aristocracy, focusing on Tosung. In Cheongju, there existed a powerful local power since the last period of Shilla. In fact, powerful family of Cheongju was originally the core power of Goongye and the hotbed for Goongye's power who participated in founding post-Goguryeo. Thus, when Wanggeon killed Goongye and founded Goryeo, The powerful family of Cheongju was dissatisfied and raised rebellions successively. However, Wanggeun successfully put down the rebellions of Cheongju powerful family effectively. In the meantime, Wanggeon also made efforts to appease them as seen in the fact that, in his fist tour of the province after rising to Taejo, he chose Cheongju as the first visiting place in an effort to appease the local powers of Cheongju.

After Goryeo united the post-three kingdoms, the Goryeo Court

assigned 'Tosung' to local powerful families, who were the classes representing the support powers in relevant county and district. Out of the Tosung group in each county and district, some came up to the principal to build up into the central nobility while others entered into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provincial posts.

According to <Sejongshillok> Geography, there were 12 Tosungs in Cheongju. With the number of Tosungs largely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district, a big Eup had 7 to 10 of them, middle and small Eup 4 or 5, while Hyang, So, Bugok and Chon had 1 or 2 Tosusngs. Accordingly, it is found that the biggest number of Tosung existed in Cheongju. Twelve Tosungs in Cheongju include Han, Lee, Kim, Gwak, Son, Gyeong, Song, Go, Joon, Yang, Dongbang and Jung, all of which are the surnames with the clan of Cheongju in the origin.

Of these Tosungs, Kim, Lee and Gwak of Cheongju were not only the powerful local powers but also advanced to the center in the beginning of Goryeo and built up into the high-birth nobility producing high-rank officials. Turning the latter part of Goryeo, Cheongju Kim rapidly lost influence failing in power both in the center and province, and finally fell off. On the other hand, Lee and Gwak of Cheongju, typically, continued to act as powerful family until the end of Goryeo, and then in the beginning of Chosun, built up into a prestigious big name maintaining the clan power for a long time thereafter.

Han, Jung and Gyeong of Cheongju advanced into the center in the latter part of Goryeo. As to Han, they advanced to the center at the end of Goryeo, built up greatly taking charge of a high office and important posts, maintained the clan power in the beginning of Chosun and then became a noted big family in the

15th century. Gyeong of Cheongju built up into a central power as Gyeong Dae-seung rose to the top supremacy by removing Jung joong-bu, and even at the end of Koryeo acted vigorously as a powerful clan. Jung of Cheongju advanced to the center in the period of Gojong, Koryeo, and built up wonderfully in the period of interference by Won. This clan then participated in founding Chosun by helping Lee Sung-gye to become a founding member of the new kingdom.

Key words : the powerful family of Cheongju, Tosung(土姓) of Cheongju Region, Kim, Lee, Gwak, Han and Gyeong of Cheongju

